

탈북이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의 한 방향

- <단군신화>·<주몽신화>를 중심으로

최윤정*

<차례>

1. 서론
2. 탈북이주민을 위한 시민인문강좌 소개 및 수강생 설문
 - 1)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 소개
 - 2) 시민인문강좌 수강생 설문 내용
3. 탈북이주민 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단군신화>·<주몽신화>의 의미
 - 1) 문화정체성 모색을 위한 집단서사로서의 가능성
 - 2) 탈북 외상 치유를 위한 개인서사로서의 가능성
4. 결론-탈북이주민 문화교육을 위한 제언

<국문초록>

본고는 분단-다문화 시대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탈북이주민의 존재를 문화적 디아스포라라는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탈북이주민들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문학적 사유 방식과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문화교육이 실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탈북수강생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내용과, <단군신화>·<주몽신화>가 갖는 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서 <단군신화>·<주몽신화>가 갖는 의미를 ‘문화정체성 모색을 위한 집단서사로서의 가능성’과 ‘탈북 외상 치유를 위한 개인서사로서의 가능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탈북이주민 문화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용인대 교육대학원 조교수

하였다. 첫째, 분단 이래 정치·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된 남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람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고전'과 '전통'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 이주민들의 개인적·집단적 경험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탈북이주민, <단군신화>, <주몽신화>, 집단서사, 개인서사, 동질성, 치유

1. 서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탈북이주민¹⁾ 등이 꾸준히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50만 명 정도이고²⁾ 탈북이주민의 수는 2만 6천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숫자는 계속

1) 탈북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엄태완은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경남대학교 출판부, 2010, 17~18쪽)에서 “연구자들은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나 정부의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새터민’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 중에는 ‘북한이주민’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남한의 일반인들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러한 명칭으로 분류되어서 남한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명칭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평범한 남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들의 경험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북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박영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 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미드리』 5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11쪽)에서 “적대적 분단 상황에 있는 한반도 내 국가 ‘경제인적 특성’과 이주민의 ‘소수 집단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탈북이주민’으로 명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견해를 수용하여 ‘탈북이주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필요에 따라 ‘탈북민’이라는 줄임말로도 사용했을 것을 미리 밝혀둔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³⁾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결속력을 주장하는 일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 특히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문화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다문화적인 가치를 강조할수록 기존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주요한 이념이자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명분인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개념은 대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를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보면 문제는 좀 더 복잡미묘해진다.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탈민족주의적인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목숨을 걸고 남한 동포의 땅을 찾아온 탈북이주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남한인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탈북이주민을 다문화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 혹은 한민족의 특별한 문화적 디아스포라로 볼 것인가?’⁵⁾라는 학계의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 탈북이주민의 견해를 살펴보

- 2) 『연합뉴스』, <다문화 가족 정책 현황과 과제> 2014년 1월 15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5183707220> (방문일 2014년 1월 20일.)
- 3) 통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탈북이주민 숫자는 남성 7,950명, 여성 18,174명으로 총 26,124명에 달한다. http://www.dongposarang.com/introduction/04_life_ture.jsp (방문일 2014년 1월 8일.)
- 4) 변화영은 「글쓰기 교육에서의 소수자 담론」(『영주어문』17집, 영주어문학회, 2009, 235쪽.)에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윤형숙 역, 나남출판사, 2002, 25쪽.)에서 제시한 민족이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라는 발언을 근거로 하여, 단일민족, 백의민족 등 자민족중심주의 시각이 내재된 민족 개념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았다.
- 5) 최원오는 「다문화사회와 탈북이주민: 디아스포라적 관점의 적용을 통한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54집,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272쪽에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탈북이주민은 국민/비국민의 경계에 위치하여 있는 존재들이기에 다문화사회의

면, 그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이 재외 국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일원 정도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종종 토로한다.⁶⁾ 그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남한인들과 동등하게 규정하고 싶어 하며 이를 동포 또는 형제 의식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탈북이주민을 위한 논의는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⁷⁾ 무엇보다도 남한인들이 탈북이주민을 낯선 존재로 바라보는 현실과, 탈북이주민이 자신을 남한인들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간극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즉, 탈북이주민은 남한인과 동일한 한민족 이기는 하지만, 남북 분단 이래 상이한 사회체제에서 살아왔고, 탈북 과정에서 생사를 건 특별한 경험을 한 문화적 디아스포라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사회를 다문화시대라고 지칭하기보다는 ‘분단-다문화시대’라고 하는 것이 탈북이주민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에 더욱 적절한 것이다.⁸⁾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역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타민족 집단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탈북이주민의 성격을 ‘문화적 디아스포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 6) 대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을 외국출신 이주민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조선족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다. 한국의 상당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조선족과 비교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선족과는 사회적 지위와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곤 한다. (박영자, 앞의 논문, 11쪽.)
- 7) 박형빈은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윤리교육연구』 31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214쪽에서 “관용과 평등 인권의 문제에서 다문화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을 자연스럽게 포섭한다. 반면, 민족 정체성과 단일 민족의 논의 속에 통일교육을 말하고자 할 때 단순히 이주노동자 혹은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다른 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 문제제기에 필자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의 전제로 삼고자 한다.

탈북이주민들은 남한에 들어온 직후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기본적인 적응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때 받은 교육은 주로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습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⁹⁾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이고 다각적인 문화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정작 강좌를 개설하더라도 탈북이주민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강의, 종교 활동에만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탈북이주민들이 남한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문학적 사유 방식과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의 실례를 소개하고,¹⁰⁾ 탈북수강생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자가 담당하였던 강좌의 주요 내용인 <단군신화>·<주몽신화>가 갖는 탈북이주민 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¹¹⁾ 특히, 문화교육의 대상이 탈북이주민이라는

8) '분단-다문화시대'라는 용어는 양영자의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23~48쪽 논문에서 차용하였다.

9) 박영자도 상기 논문에서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남한사회 적응 훈련은 일률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를 위한 정보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권리 및 의무 관련 교육, 그리고 의식과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10)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시민인문강좌 지원 사업 (연구책임자 이화여대 철학과 김혜숙 교수. 과제 번호 2012S1A6A2036643. 지원 기간 2012.9.1~2013.8.31.)

특성을 감안하여 두 신화를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정체성 모색을 위한 집단서사로서의 가능성이고,¹²⁾ 둘째는 탈북 외상 치유를 위한 개인서사로서의 가능성이다.

<단군신화>·<주몽신화>의 작품서사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겪는 통과리례적인 고통, 이주와 정착의 맥락, 토착민과 이주민의 관계 등은 비단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탈북이주민의 삶에 대응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화 교육을 통해 남북 공동의 뿌리를 찾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아울러 탈북민 대상의 문화교육에서 인문학 제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¹³⁾

<단군신화>·<주몽신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매우 많아 일일이 거

- 11) <단군신화>·<주몽신화>는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작품의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와 『삼국사기』에 수록된 <주몽신화>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 12) 연구자에 따라서는 탈북민의 문화정체성 모색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필자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디아스포라의 문제와 탈북민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 아직까지도 남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탈북민의 문화정체성 모색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 13)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고전문학의 활용방안은 2013년 2월 15일에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 81차 학술대회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있다. 이 때는 주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김서형,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비교 연구—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김수연, 「영웅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지혜 읽기—<소대성전>을 중심으로」; 이정원,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정선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앞의 논문은 모두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에 수록되었음.)

론하기 어렵지만,¹⁴⁾ 이를 탈북이주민 문화교육 텍스트로서 직접 관련시킨 경우는 없었다. 다만, 문학치료학 분야에서 두 신화의 내용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 서사와 관련된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연구가 있었고,¹⁵⁾ <단군이야기>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웅녀이야기’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문학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다.¹⁶⁾ 그 외에 구비설화를 활용하여 탈북이주민을 치료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¹⁷⁾ 탈북이주민들의 생애담을 활용하여 문학치료에 접근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¹⁸⁾

본고는 필자가 참여했던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와 수강생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를 중심에 두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탈북이주민과 관련된 철학·정치·사회·교육·심리·문학치료학 분야 기존 연구와, 건국신화와 관련된 남북한 문학사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였다.¹⁹⁾

14)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대한 대가들의 연구 성과를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고를 작성하면서 건국신화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열규, 『한국의 신화』, 1982와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티벳·몽고·만주·한국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등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15) 정은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 서사』, 『인문학논총』 4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16) 전영숙, 『<단군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25~144쪽.

17) 강서영, 『새터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통일인문학논총』 51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67~97쪽.

18) 나지영,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자기서사 진단 사례 연구』, 『통일인문학논총』 52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김종군,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07~134쪽.

19) 해당 기존 연구 목록을 지면상 열거하기 어려워 참고문헌 목록에 정리하였다.

2. 탈북이주민을 위한 시민인문강좌 소개 및 수강생 설문

1)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 소개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화여대 철학·국문·사학과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탈북이주민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강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고,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점증하는 탈북이주민 문제는 한국 사회문화에 매우 큰 파장을 가진다. 이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주변화 될 것이다. 당장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기에 대한 숙고와 투자는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바로 이러한 태도가 탈북이주민의 한국문화 적응력을 낮출 우려가 있다. 이러한 탈북이주민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기본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탈북이주민들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도모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거리감을 극복하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관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략)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사업은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탈북이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²⁰⁾

20)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미간행) 참조. 이하 강좌 소개 관련 내용 동일 자료 참조. (본 사업의 계획서와 보고서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탈북이주민’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사업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과제에 함께 참여했던 이화여대 철학과·국문과·사학과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강의에 참석했던 탈북수강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특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철학과 김혜숙 교수님, 사업 준비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신 국문과 조혜란 교수님,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철학과 박지희

철학·국문·사학과가 공동 추진한 이 사업의 목적은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탈북이주민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청년층에 속하는 이들의 문화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한 데에 있다. 실제 강의는 이화여대에서 실시된 성인 일반강좌와 여명학교에서 시행된 청소년 일반강좌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세부 강의 내용은 탈북이주민들의 경험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담당 강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특정 텍스트—영화, 문학 작품, 다큐멘터리, 웹툰, 책 등—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강사진은 전공 분야별로 3-4명의 공동연구원들로 구성되었다. 강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명학교의 경우에는 1-2명의 선생님이 고정적으로 지도를 하였지만, 이화여대 강좌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 3-4명이 교대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시민인문강좌는 시기적으로는 1기(2012년 9월-2013년 1월)와 2기(2013년 3월-2013년 8월)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기의 경우, 성인 일반강좌(총 15강좌)와 청소년 일반강좌(총 15강좌)로 이루어졌고, 2기의 경우, 성인 일반강좌(총 15강좌)와 청소년 일반강좌(총 15강좌), 성인 글쓰기 집중강좌(총 4강좌)와 청소년 글쓰기 집중강좌(총 4강좌), 역사 집중강좌(총 2회)로 이루어졌다. 대략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기 성인 일반강좌 내용을 다음 도표로 제시하였다.

선생님, 여명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대신해주신 국문과 홍인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시민인문강좌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에 응해준 탈북수강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본 강좌와 논문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표1]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1기 성인 일반강좌 추진 일정

일자	시간	장소	담당강사	주제
2012.10.06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철학과A)	운명, 팔자란 것이 있을까?
2012.10.13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철학과A)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가?
2012.10.20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철학과B)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는 있는가?
2012.10.27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철학과B)	내 이익에 반해서 남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2012.11.03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철학과C)	행복이란 무엇인가?
2012.11.10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국문과A)	남북 공동의 뿌리 찾기: 한민족 신화의 원형 살펴보기 - <단군신화>, <주몽신화>
2012.11.17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국문과B)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사랑의 의미 <춘향전>
2012.11.24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국문과B)	내면의 위로와 치유: 자기 내면 드러내기, 치유의 방법 모색 -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 마디>
2012.12.01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국문과C)	좌절의 극복과 새 힘 찾기: 삶의 희망 찾기 - 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신경숙 <외딴방>
2012.12.08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08호	(국문과C)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의미 상호 소통하기 - 박완서 <자전거 도둑>
2012.12.15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사학과A)	우리 민족, 어떻게 시작되었나?
2012.12.22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사학과B)	조선의 건국이념과 유교문화
2013.01.05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사학과B)	문화유산을 통해 본 한국의 불교문화
2013.01.12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사학과C)	이미지로 보는 대한제국의 역사
2013.01.19	10:00-12:00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사학과A)	일제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

이 사업 이전에도 탈북이주민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었던 철학과 담당 선생님은 ‘탈북이주민들의 경험 자체가 매우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대상의 강의는 소규모로 매우 개별화된 관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탈북이주민들의 특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적 호기심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급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찾아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본 틀로 강좌 일정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일반 강좌는 탈북이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각각 운영하였고, 철학·국문·사학과에서 각 5주씩 담당하여 매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집중 강좌는 각 영역에서 단기간 동안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의를 개발하여 방학 중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였다.

2) 시민인문강좌 수강생 설문 내용

본 시민인문강좌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일은 탈북이주민들을 강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여명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담당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면 되었지만, 이화여대에서 진행되는 강좌에는 탈북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했다. 탈북이주민들은 본인의 신분을 직접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 자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았다.²¹⁾ 탈북이주민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주

소 및 신상명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려 하며, 그들이 소속된 여러 모임이 있지만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하나센터 등을 통한 홍보, 이화여대 학보 공지, 홍보 UCC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면서도 강의의 듣는 것 이외에 물질적인 보상이 거의 없는 본 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수강생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비록 양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필자가 직접 지도했던 이화여대 강좌 참여자 중 설문에 응해준 5명과, 여명학교 담당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1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들의 한국문화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화여대 수강생 5명은 모두 여성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7세, 북한 거주 기간은 평균 24년, 남한 거주 기간은 평균 2년 1개월이었다. (2013년 5월 기준. 2명의 중국 거주 기간인 29개월, 36개월 별도)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았고, 남한에 온 이후에 4명은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1명은 구청 계약직으로 일하며 사이버 대학 재학 중이었다.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수강생 10명의 남녀 비율은 5:5였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세, 북한 거주 기간은 평균 15년 4개월, 남한 거주 기간은 평균 3년 4개월이었다. (2013년 5월 기준. 7명의 제3국 체류 기간(최소 1개월-최대 12년 1개월 별도)) 이들 중에 4명은 북한 거주 기간 중에 학교 재학 경력이 전혀 없었는데, 2명은 취학 전 연령에 탈북한 경우이고, 나머지 2명은 16년-18년 동안 북한에 거주했는데도 정규 교육을 받지

21) 적십자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4개소의 하나센터에서 강좌를 열 경우 한 강좌에 10명 정도 모으는 일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실제 본 강좌를 진행하면서도 출석부에 수강생 본인이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였고, 강사들이 수강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했다.

않았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거나,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여명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설문지의 질문 문항은 총 13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신화를 포함한 한국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묻는 간단한 내용으로 필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수강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2(1-13)] <통일을 위한 인문학> 수강생 설문 조사 내용
(이화여대·여명학교 수강생 15명 대상, 설문 시기 2013년 5월, 모든 문항 복수 응답 허용)

질문1	내가 알고 있는 영웅 신화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 것인가?					
보기	①김일성	②김정일	③김정은	④단군	⑤주몽	⑥기타
답변	4	3	0	10	5	없음 1
질문2	위 신화를 처음 접한 시기는 언제인가? (여러 신화를 알고 있으면, 신화의 종류와 알게 된 시기를 연결해서 표기.)					
보기	①유아동기 (3세-7세)	②초등학생 (8세-13세)	③중학생 (14세-16세)	④고등학생 (17세-19세)	⑤기타	
답변	1	5	4	2	3 (학교시절1, 없음2)	
질문3	위 신화를 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	①부모나 형제	②학교 선생님	③친구	④친척	⑤기타	
답변	2	9	1	0	4 (없음2, 중국 거주중 주변인1, 남한정착 교육과정1)	
질문4	위 신화를 알게 된 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보기	①영웅적 인물의 위대함	②영웅적 인물의 신성함	③신화와 현실의 동일함	④신화와 현실은 다름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일 뿐임)	⑤기타	
답변	3	4	1	4	3(모름2, 전설일 뿐임1)	
질문5	우리 민족(한민족)과 관련된 신화를 알고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보기	①단군 신화	②주몽 신화	③혁거세 신화	④기타	⑤전혀 모름	
답변	7	6	1	0	5	

질문6	우리 민족(한민족)과 관련된 신화를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기	①북한 거주 시기	②남한 거주 시기	③제3국 거주 시기	④기타		
답변	5	5	3	2 (모름2)		
질문7	우리 민족(한민족)과 관련된 신화를 알려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	①부모나 형제	②학교 선생님	③하나원 직원	④친구	⑤기타	
답변	1	8	2	1	2 (무응답1)	
질문8	우리 민족(한민족)과 관련된 신화를 알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보기	①남북한 민족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	②우리 민족(한민족)이 위대하고 신성함	③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일 뿐임	④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⑤기타	
답변	9	5	1	1	(모름 1)	
질문9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민족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나 노래 등을 알고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보기	①콩쥐팍쥐, 심청전 등과 같은 전래 동화	②춘향전, 홍길동전 등과 같은 고전 소설	③시조, 가사와 같은 고전 시가	④한문(한자)로 표기된 한시나 한문학	⑤기타	⑥전혀 모름
답변	2	13 (임격정, 불가사리 2)	1	0	0	2
질문10	만약 우리 민족(한민족)과 관련된 신화나 옛날 이야기 등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배울 생각이 있나요?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를 간단히 써주세요.)					
보기	예 (11)		아니오 (3), 무응답 (1)			
답변	1.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선조의 깊은 뿌리부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2. 역사를 알아야 애국심과 뿌리를 더 잘 알 수 있기에 3.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요. 4.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김부자네는 핵무기 어찌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왜 그리도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배우기 싶다가보다는 알고 싶어요. 6. 역사에 대해 알면 자기 자신한테 좋으니까 7. 잘 알아두려고 합니다. 8. 그냥 다 알고 싶어요.		1. 흥미 없다. 2. 관심 별로 없습니다. 3. 그냥 할 게 많아서요. 영어랑 문학 같은 과목			

질문11							남북한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보기	①같은 민족 신화를 알게 되었을 때	②남북한이 문화, 경제적인 협력을 할 때	③남북한이 단일한 팀으로 운동 경기를 할 때	④남북한 정치 지도자가 함께 만났을 때	⑤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⑥기타		
답변	5	0	4	1	7	1(하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 또는 그런 느낌도 없다.)		
질문12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보기	①자유롭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②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	③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④남한 사람과 사귀어 볼 수 있는 것		⑤기타	
답변	4		11	0	0		1(북한 기억이 없어서 모름)	
질문13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보기	①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문제	②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	③경제적인 어려움	④서로 다른 교육 과정	⑤남한 친구를 사귀는(인간 관계) 문제	⑥사회적인 차별 문제	⑦기타	
답변	6	5	2	2	2	3	1(공부)	

이화여대에서 수강한 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설문과 강좌에 참여하였고, 여명학교 학생 중에는 다소 무성의하게 설문에 응하고 거의 모든 문항에 ‘모름’, ‘없음’에 체크한 경우도 있었다. (이 학생은 ‘남북한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를 묻는 [질문11]에도 ‘하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 또는 그런 느낌도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썼다.)

[질문1]에서는 이들이 알고 있던 영웅 신화를 물었는데, 김일성·김정일에 응답한 경우(7)보다 <단군신화>·<주몽신화>에 체크한 경우(15)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다시 검토해보면, 김일성·김정일 문항에 체크를 했다가 다시 지운 경우가 몇 명 있었다. 김일성·김정일 신화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낯선 남한인에게 굳이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고 싶지 않은 이들의 심리를 짐작해볼 수 있다. [질문5]에서는 우리 민족(한민족)과 관련된 신화에 대한 물음에 <단군신화>·<주몽신화>를 안다고 답변한 경우가 13명이었다. 그리고 전혀 모름에도 5명이 체크를 하였다. 하지만, 영웅 신화에 대해 물은 [질문1]에서는 없음에 1명만이 체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상한 점이 있다. 이는 이들이 영웅 신화와 민족 신화라는 용어상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질문8]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우리 민족과 관련된 신화를 알고 나서 한 생각은 ‘남북한 민족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9),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신성하다.(5)’는 점이었다. 그리고, [질문10]에서 ‘만약 우리 민족과 관련된 신화나 옛날 이야기 등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배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수강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선조의 깊은 뿌리부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역사를 알아야 애국심과 뿌리를 더 잘 알 수 있기에,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요, 역사에 대해 알면 자기 자신한테 좋으니까.’ 등과 같은 답변처럼 신화와 옛날 이야기를 ‘역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11]에서는 ‘남북한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7), 같은 민족 신화를 알게 되었을 때(5), 남북한이 단일한 팀으로 운동 경기를 할 때(4)’ 순으로 답변을 하였다. [질문12]에서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11), 자유롭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4)’을 꼽았다.

이상 시민인문강좌에 참여했던 수강생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신화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을 다소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필자가 진행했던 <단군신화>·<주몽신화> 강좌를 통해 탈북이주민들에게 두 작품이 갖는 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탈북이주민 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단군신화>·<주몽신화>의 의미

1) 문화정체성 모색을 위한 집단서사로서의 가능성

탈북이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는 앞서 2장 설문조사를 통한 [질문13] 답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이는 다소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탈북이주민들이 처해 있는 이중적인 상황과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탈북이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겪는 여러 문제들의 기반에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에 있다는 다음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기실 이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체성 혼란이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형과 억양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조선족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의 경우도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이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에서도,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을 ‘통일역군’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기도 하나,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지책을 드러낸 것이다. (중략)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 분단 체제 하 적대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 출신으로, 한국인과 전통적 민족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상이한 사회체제 속에서 성장한 이들이다. 이들은 탈북을 경유하며 한국사회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낯선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이주민의 보편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민족구성원이며 법률상 입국 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을 이주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분단체제 하 적대국 출신이며 동시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다.”²²⁾

이렇듯 분단-다문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탈북이주민들의 이중적인 지위와 가치 혼란을 상쇄할 수 있는 가치관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그 한 가지 방안으로 신화 교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연구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민족주의는 남한과 북한 주민을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혈통과 단군신화와 같은 심리적인 신화로 덧입혀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인식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구성주의자들이 지닌 민족 정체성인 동시에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비롯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유형이 될 것이다.”²³⁾라고 제시한 바 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 개념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었다. 하지만, 다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일민족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신화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지양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²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 1일자로 ‘다문화가정

22) 박영자, 앞의 논문, 8쪽.

23) 박형빈, 앞의 논문, 225쪽.

자녀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종래 단일민족주의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에는 관련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과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에서 기존 교과서의 한민족, 한핏줄, 한겨레 등의 표현 삭제가 검토되었고,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2007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삭제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같은 기조는 2007년 6월 6일자로 발표한 '2007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의 발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²⁵⁾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후 남한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이주민들의 대부분이 민족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위와 같은 탈북민들의 인식과 현재 분단-다문화시대인 상황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교육지책으로 현재 교육 현상이나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열린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열린 민족주의'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²⁶⁾

앞으로의 신화 교육은 기존의 것이 자민족만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로 왜곡될 여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타민족·타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는 새로운 차원에

24) 고등학교 윤리 교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현직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현 윤리 교재에서 <단군신화>는 전통 사상을 소개하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고, 신화 내용을 지도할 때에도 단일민족 사상보다는 단군 사상, 홍익인간 정신을 소개하는 정도로 다룬다고 한다.

25) 안영미,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기초한 통일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6)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교육』 29집, 한국도덕과윤리교육학회, 2009.; 안영미, 위의 논문 등이 있다.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의 문화정체성을 모색하는 측면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남한의 문학사에서 <단군신화>는 대체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국문화의 근원적 자료로서 중요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북한문학사에서도 유사하게 인정되어 왔다. 남북의 문학사 서술의 공통점은 첫째, 단군신화가 최초의 서사문학이라는 관점, 둘째, 단군신화 발생을 우리나라의 원시 및 고대사회, 특히 고조선의 역사적 성립과 관련 지어 설명한 점 등이다. 차이점은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로 부터 시작하여 단군신화의 내용을 사회주의 이념 및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한 점이 차별성이 보이고 단군신화에 대한 용어 및 고조선조의 기록을 예시함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²⁷⁾

남한에서 <주몽신화>로 불려지는 신화는 북한에서는 <해모수 신화>과 <주몽전설>로 구분되어 전해지고 있다.²⁸⁾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해모수신화>의 주인공 해모수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낭만적인 성격은 고대영웅신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략) <주몽전설>은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역사적사변들과 고구려사람들의 씩씩한 생활기풍과 상무정신을 인식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주몽전설>은 신화적형상의 다양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후기설화의 창작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²⁹⁾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27) 이재원, 『남한과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고조선단군학』 9집, 단군학회, 2003, 112쪽.

28) 시민강좌에 참여했던 수강생들 중 일부도 <주몽전설>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몽이 탈출하는 장면이 김일성 신화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29)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민속원, 1990, 37집, 42쪽. (인용문 띄어쓰기 원본 참조)

북한에서 간행된 고전문학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첫째로 인민문학을 특별히 강조하는 점, 둘째로 고구려와 발해의 문학을 강조하는 점, 셋째로 한문학의 수용에 별다른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는 점³⁰⁾을 들 수 있는데, <해모수 신화>과 <주몽전설>이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특히, 여러 건국 신화 중에서도 필자가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탈북이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두 작품이 우리의 신화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며, 고조선과 고구려라는 공간적 배경이 탈북민들이 실제로 거주했던 지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탈북이주민 대상 강좌를 진행하면서 두 신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EBS다큐프라임의 <한국신화를 찾아서> '1부 건국신화의 비밀'편³¹⁾을 활용하였다. 다소 경직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던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거주했던 북한 지도와 이미지를 보자 약간씩 반응을 보이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자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어렵게 탈북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앞서 2장 설문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북수강생들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건국 신화나 옛날 이야기의 내용을 '역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남한 학계에서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실체와 개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고, 탈북이주민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작 탈북수강생들은 남

30) 설성경·유영대 공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72쪽.

31) 2009년 8월 10일 방영본(<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4870>)

북한이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군신화>와 관련된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늘신인 환인의 자손이며 인간 세상을 중요시한 환웅의 후손이라는 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웅녀의 후손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주몽신화>에서 전개되는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과 유화의 귀양→주몽의 탄생과 성장→주몽의 비범성과 영웅성→고구려의 건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서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12살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비범함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한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통일서사를 구축하는 일과 맞물려 있는 일이라 보고, <단군신화>·<주몽신화>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인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본원적으로 간직한 민족이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려 독립하는 역량이 있는 민족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³²⁾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남한 정규 교과 개정 사안에는 단일민족 개념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이 반영되어 있어 통일교육의 준거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침서’에는 ‘민족공동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199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의 목표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주안점에도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의 지침서에는 주안점에만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어 있다.³³⁾

32) 정운채, 앞의 논문, 24~25쪽.

33) 안영미, 앞의 논문, 50~51쪽.

이는 다문화시대의 현실적인 요구와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상충되어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문화중심적인 단한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면 분단-다문화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본 강좌에서 활용하였던 EBS다큐프라임의 <한국신화를 찾아서> 1부 건국신화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은 <단군신화>·<주몽신화>에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신화 내용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신화 내용과 비교·대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였다. <단군신화>·<주몽신화>와 유사한 다른 민족의 신화를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우리 민족만의 신화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신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것이다.

먼저, 북방 시베리아 브리야트족에게 내려오는 <게세르 신화>가 <단군신화>와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신화에서도 하늘신인 히르마스가 악의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아들 게세르를 땅으로 내려보내고, 게세르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 평화를 되찾는다. 그리고, 인간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후대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몽신화>는 몽골족과 만주족 기원 신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소개하였다. 몽골 시조모인 알랑고이는 물에서 태어난 여인으로, 하백의 딸인 유화와 유사하다. 알랑고이는 도본게르겐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죽게 된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알랑고이는 게르 천장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인해 3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고, 그 중 1명이 징기스칸의 선조인 비단차르이다.

만주족의 기원 신화를 살펴보면, 포록호리라는 연못에서 3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새가 물어다준 붉은 열매를 먹고 포고리용순을 낳는다. 하지만, 아버 없는 자식이라는 오명을 벗겨주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에게 작은 거룻배 한 척을 주며 새로운 나라를 열 것을 조언한다. 이것이 후에 청나라 태조인 누르하치 선조의 종족 신화인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탈북수강생들은 한민족, 몽골족, 만주족, 게사르족이 모두 하늘신의 후예이며 천손강림형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비교신화를 연구하거나 배운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새롭지 않겠지만, 남한에서 계속 살아왔던 일반인들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강생들이 이 내용을 먼저 배경지식으로 삼고 <단군신화> · <주몽신화> 텍스트를 감상하고 나니, 두 신화가 한민족의 신화이면서도 다른 민족의 신화와 유사성이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남북한이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타민족 신화와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 신화를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또한 신화의 의미가 기존의 민족 개념을 강조하는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집단서사로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 탈북 외상 치유를 위한 개인서사로서의 가능성

탈북이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텍스트로서 <단군신화> · <주몽신화>의 의미를 또다른 차원에서 찾아본다면, 탈북 외상 치유를 위한 개인서사로서의 가능성을 들 수 있겠다. 인간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경험을 하게 되면 신체와 정신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사망, 치명적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외상(트라우마)이라고 부른다. 탈북이주민들은 주로 남한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탈북

과정에서 이러한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³⁴⁾

탈북이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직면할 뻔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탈북 이후에도 외상으로 남아 있다.³⁵⁾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이주민이 북한 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공개 처형 장면의 목격(86.3%), 아사자의 목격(85.3%), 구타 장면의 목격(75.8%), 정치과오로 인해 처벌 받는 사람의 목격(67.4%), 가족 등의 질병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경험(63.2%) 순이었다.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많은 외상적 사건은 발각의 두려움(84.2%),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84.2%), 국경에서 북한 당국의 검열(60.0%), 중국 경방대의 검열(55.8%), 망명 요청의 거절(54.7%) 순으로 나타났다.³⁶⁾ 그리고, 이러한 외상은 탈북 이후에 곧바로 치유되기보다는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등으로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³⁷⁾

또한, 탈북이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주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기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그 규모 및 이주패턴은 공식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로 민간단체들에 의해 조사된 내용

34) 엄태완, 위의 책, 111쪽.

35) 최근 발간된 김종군·정진아 엮음,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등을 비롯한 많은 자료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목격할 수 있다.

36)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7)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전체인 2만 4010명 중 0.09%에 이르는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인 우리 국민 자살률 0.03% (국민 10만명당 자살률 31.7명)의 3배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자살률보다 3배나 높아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심리 상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희 기자, 『대전·충남=뉴스1』, 2012년 10월 24일 기사. <http://news1.kr/articles/865279>(방문일 2014년 1월 10일))

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³⁸⁾ 탈북민들은 대부분 지형적으로 이동이 쉽고 유사한 문화적 환경을 지닌 두만강 유역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국경이 길어서 철저하게 탈북민들을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내에 정착하지 못했거나 탈북의 목표지가 남한 또는 제3국인 탈북민들은 몽골을 비롯하여 중국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제3국을 이주 경로로 이용하고 있다. 주요 이주경로는 중국→미얀마→태국 루트,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루트, 중국→몽골 루트가 존재한다.³⁹⁾

앞서 2장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인문강좌 수강생 15명 중 9명이 중국이나, 태국 등에서 최소 1개월-최대 12년 1개월 동안 체류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탈북과정에서 이들이 제3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을 시행할 때, 이들에게 치명적인 외상을 입히는 탈북 과정의 험난함과, 탈북 후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루트를 거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은 신화 내용 중 큰 틀을 이루고 있는 ‘통과의례’라는 개념이 탈북민들의 개인적 경험과 공통분모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통과의례’라는 키워드는 물론 다른 대상을 교육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탈북민들의 삶의 경험에 대응시켜 논의하기에 적합하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치료 연구에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자기서사’라 하고, 이 자기서사에 영향

38) 임태완, 앞의 책, 26쪽.

39) 문남철,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재외 거주공간 정책의 필요성』, 『지리학연구』 38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04, 506쪽.

을 미치는 서사를 ‘작품서사’라 규정하면서, 문학작품의 작품서사를 통하여 환자의 자기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문학치료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한다.⁴⁰⁾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탈북이주민들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 구조화할 수 있는 ‘자기서사’와 <단군신화>·<주몽신화>의 주요 내용 중 한 부분인 ‘통과의례’라는 ‘작품서사’를 통해 이들의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겠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개인의 생활은 한 나이에서 다른 나이로 또한 한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의 계속적인 통과를 포함한다. 나이에 따른 집단들이나 직위에 따른 집단들 사이에 명백한 구별이 있는 곳에서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통과는 특별한 행위를 동반하는데 이를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라고 한다.⁴¹⁾ 통과의례는 분리 의례, 전이 의례, 통합 의례로 나눌 수 있다.⁴²⁾ 첫 번째, 분리(separation)는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속의 시간이나 공간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이(transition)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는 중심 국면으로 애매한 장소와 시기에서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겪는 것이다. 세 번째 통합(incorporation)은 새로운 지위로 개인이 사회 맥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를 <단군신화>·<주몽신화>와 <탈북민 서사>에 대응시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40) 정운채, 『서사의 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 교육』 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110쪽.

41)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29쪽.

42)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위의 책, 40쪽.

[표3] ‘통과의례’로 살펴본 신화 내용과 탈북민 서사

	<단군신화>	<주몽신화>		<탈북민 서사>
		유화	주몽	
분리	곰이 호랑이와 함께 동굴에서 살게 됨.	해모수에게 버림 받고, 하백에게서도 추방당함.	왕자들의 질시로 牧馬를 하게 됨.	북한 탈출 (이주)
전이	곰이 동굴에서 삼칠일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썩과 마늘만을 먹음.	낳은 알이 버려짐.	세 친구와 탈출하였으나 배가 없음.	제3국 등을 거쳐 탈북 시도. 탈북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감옥생활, 인신매매, 원하지 않은 출산, 기아, 검열, 입국 거부, 죽음의 위협 등의 어려움. (고난)
통합	곰이 고난 끝에 웅녀로 변화하여 환웅을 만나 단군을 낳음.	알을 찾아 아들 주몽이 태어남.	魚髓의 도움으로 다리를 건넌. 고구려 건국.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으로 오게 됨. 대한민국 내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중적 지위 획득. (정착)

<단군신화>에서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곰이 썩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만을 먹고, 삼칠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은 결과 웅녀가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주몽신화>에서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화가 해모수를 만난 이후에 겪게 되는 시련 과정, 주몽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여 탈출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과의례의 과정은 신화 비평에서 죽음과 재생의 모티브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는 상징적 죽음을 통한 재생의 의미를 지식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⁴³⁾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이주

43) 실제로 연구자가 10여 년 동안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지도 시간에서 ‘통과의례’의 개념을 여러 차례 설명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용어를 삶의 경험이 아닌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민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통과의례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고단하고 힘겹기 때문에, 신화 속의 상징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시민인문강좌에 참여했던 수강생 중에도 탈북 과정에서 형제가 굶어 죽는 장면을 목격한 10대 남학생, 인신매매 조직에 속아서 중국에 있는 지체장애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출산하고 살다가 6년 만에 탈출한 20대 중반 여성, 가족 중에 본인 혼자 탈북에 성공하여 명문대학에 입학했지만 남한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모두 보내고 끼니를 우유로 때우며 지내는 20대 초반 여학생이 있었다. 이렇듯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통과의례란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용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삶의 역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겪은 지난한 탈북 과정이 상징적인 죽음에 해당한다면, ‘지금—여기’ 남한이라는 공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은 또다른 존재로의 탄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탈북이주민들에게 재생의 의미는 꿈이 옹녀로 탈바꿈하거나,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 된 것처럼 성공적인 완성형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전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통과의례를 겪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에게 이주는 목숨을 건 행위이며, 새로운 삶을 찾아떠나는 고달픈 여정이다. 아래 제시된 탈북 이주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 과정의 험난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박명순(가명)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출소하여 그날 밤에 바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만강을 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자녀를 낳

았으며 그 이후에 몽골 루트를 통해서 남한에 이주한 사례이고,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탈출 루트의 결정과 탈출과정]

“그 바로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비자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비행기 타고 왔을건데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3국을 걸쳐가지고 와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때 오는 통로가 몽골로 왔었거든요. 그 몽골로 오려면 사막지대를 거쳐야 되거든요. 내몽고 자치주부터 그 몽골지역이 사막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거는 내몽골 그 자치주까지만 딱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나침반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걸 대충 설명을 받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길을 찾아나서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그야말로 성공하면은 좋고, 성공 못 하면은 또 다시 잡혀서 복송되어야 되면 그때는 나는 더 할말이 없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내몽골까지 가서 내몽골부터 중국 쪽에 또 변방지역이니까 중국정부에서 그쪽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경계가 너무 삼엄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기 업고 여관을 잡고 막 이래하면서도 숨 막히고 가슴 졸이고 신분증 검사할까봐 우리는 증명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분증 검사하면 바로 들통날 텐데, 그런 긴장감 때문에.”

[남한 도착]

“대사관 직원들이,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북한사람들 맞으니까 한국 가는 수속을 하는데 며칠 걸려가지고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를 타가지고…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무섭고…또 대성공사에서 한 달 동안 조사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한국 땅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게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너무나도 그때는 기운이 없고 그 정신상태가…하여튼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⁴⁴⁾

44) 엄태완, 앞의 책, 29~33쪽.

이 탈북 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거의 모두 겪은 사례라고 파악된다. 그런데도 담담하게 감옥생활, 인신매매, 원하지 않은 출산, 몽골 루트를 이용한 탈출 등의 ‘자기서사’를 진술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도했던 탈출과 이주는 자신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지만, 남한으로 오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였다. 그녀에게 이주와 탈출은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몽신화>에서는 주몽이 떠날 결심을 하는 것에서부터 아래와 같이 갈등적인 요소가 개입한다.

금와왕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며 사냥하였다. 왕자와 종자 40여 명이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는 동안에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왕자들이 이를 질투하여 주몽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갔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부여 왕의 딸이 들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길도 남다르니 만약 일찍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해 보고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이르되, “저는 천제의 손자로 태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말을 먹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에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물론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시도하는 탈북이주민의 상황과, 신변의 위협을 피해 건국이라는 큰 뜻을 펼치고자 떠난 주몽의 상황을 1: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신화 텍스트의 ‘작품서사’를 탈북이주민의 ‘자기서사’로 재구조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지, 그 과정이 어떠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주를 통해 얻은 결실에 대한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게 할 것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탈북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험난함은 사막 지대와 같은 위험한 지대를 목숨을 걸고 횡단할 만큼의 절박함, 자신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다시 복송을 당하거나 총살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숨죽이며 중국 국경을 지나고 전기가 흐르는 12개 정도의 철조망을 담요로 덮어썩워 뛰어넘으면서 탈출을 감행하였다. 중국을 지나고 몽골 국경을 넘어 국경경비대를 만났을 때의 기쁨을 위의 탈북 여성은 “완전히 미친 듯이 소리지르면서 우리 여기 있다고 사람을 만났으니까 반가운거지요. 잡아가라고 막 반가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쪽으로 오더라고요.”⁴⁵⁾라고 표현하고 있다. 삼엄한 중국 경비를 헤치고 몽골 국경경비대를 만났을 때 말이 통하지 않자, 탈북 전에 연습했던 태극기 모양을 손으로 그리면서 탈북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은 <주몽신화>의 다음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 등 세 사람과 같이 남쪽으로 가서 압록강 동북쪽에 있는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널 배가 없었다. 부여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이 걱정되어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배와 다리를 보내소서.” 하며 활로써 물을 찼다. 이에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건널 수 있었다. 곧 추격하던 병사들이 이르렀지만 물고기와 자라의 다리가 없어

45) 엄태완, 앞의 책.

지면서 다리로 올라섰던 자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이 부여의 병사들을 따돌리고 개사수에 이르렀지만, 정작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수단인 배가 없었다. 신화에서는 위기에 처한 주몽이 자신이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이라는 점을 하늘에 호소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의 경비를 뚫고 몽골에 도착했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태극기 모양을 손으로 그리는 미약한 몸짓’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다리를 놓아 주는 물고기와 자라 대신에 대사관 직원들이 구원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단군신화>·<주몽신화>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인 ‘통과의례’라는 키워드를 통해 탈북민들이 작품서사를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문학작품의 작품서사는 환자[치유 대상]의 자기서사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미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 주기도 하면서 자기서사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⁴⁶⁾

건국영웅들이 하강과 이주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웠듯이, 탈북민들은 목숨을 건 이주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재건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다만, 신화 속 영웅들의 하강과 이주가 영웅의 신성성과 비범함을 바탕으로 토착민과의 별다른 갈등 없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탈북민들의 이주는 힘들게 탈북이라는 그

46) 정은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72쪽.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토착민[남한인]과의 또다른 관계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들의 이주가 또 하나의 방랑과 방황의 연장선이 아니라, 진정한 정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결론-탈북이주민 문화교육을 위한 제언

이상 본고에서는 필자가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시민인문강좌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탈북수강생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피고,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서 <단군신화>·<주몽신화>가 갖는 의미를 ‘문화정체성 모색을 위한 집단서사로서의 가능성’과 ‘탈북 외상 치유를 위한 개인서사로서의 가능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이주민은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교육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북이주민 문화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할 수 있겠다. 첫째, 분단 이래 정치·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된 남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탈북이주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남한 문화에 동화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분단-다문화시대에 걸맞은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공통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되, 이것이 타민족·타문화를 배척하는 차원이 아닌 상호 인정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고전문학을 탈북민들의 문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고전문학은 남북한의 문학사에서 각 장르나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일한 작품을 공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한이 함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끊임 없이 습득해야 하는 탈북이주민들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줄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민들의 성향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남한인들이 일방적으로 조언을 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보인다. 탈북민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남한인들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훈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람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고전’과 ‘전통’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때 ‘전통’이라는 의미는 폐습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전통 인식을 기반으로 탈북이주민을 위한 문화교육을 시행한다면, 현대에 와서 상호 이질화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탈북이주민들의 개인적·집단적 경험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을 무조건 경계하거나 동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딛고 희망적인 새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탈북에 성공하여 일단 남한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탈북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다. 탈북이라는 목표 자체는 달성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는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남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탈북민을 돕는 정부 기관, 민간 단체, 대안 학교, 연구소 등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개별 탈북민들의 연령, 경력, 학력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문화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탈북이주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며, 앞으로 함께 살아 가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탈북이주민에게만 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성찰해볼 때 진정한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부식, 『삼국사기』, <주몽신화>
 일 연, 『삼국유사』, <단군신화>
 EBS다큐프라임, <한국신화를 찾아서> 1부 건국신화의 비밀 (2009년 8월 10일 방
 영본)(<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4870>)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통일을 바라보는 인문학’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
 서>(미간행)
- A. 반 겐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1~306쪽.
 강서영, 「새터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통일인문학논총』 51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67~97쪽.
 김서형,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비교 연구—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13~139쪽.
 김수연, 「영웅 소설을 활용한 한국적 지혜 읽기—<소대성전>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87~111쪽.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72쪽.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82, 1~203쪽.
 김중균·정진아 엮음,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1~603쪽.
 김중균, 「구술생애담 담론화를 통한 구술 치유 방안—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
 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07~
 134쪽.
 나지영,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자기서사 진단 사례 연구」, 『통일
 인문학논총』 52집,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71~112쪽.
 문남철,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재외 거주공간 정책
 의 필요성」, 『지리학연구』 38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04, 497~511쪽.
 박영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민족 가치의 성찰, 그리고 사회통합」, 『미드리』
 5호, 이주동포정책연구소, 2011, 6~21쪽.
 박지연, 「수용사적 관점에서 본 주몽신화에 대한 남북의 교육용 도서 비교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79쪽.
 박형빈,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윤리교육연구』 31집, 한국윤리

- 교육학회, 2013, 213~235쪽.
- 변화영, 『글쓰기 교육에서의 소수자 담론』, 『영주어문』 17집, 영주어문학회, 2009, 233~256쪽.
- 설성경·유영대 공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1~251쪽.
- 안영미,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기초한 통일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96쪽.
-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7, 23~48쪽.
- 엄태완,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0, 1~418쪽.
- 이정원,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61~86쪽.
- 이재원,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육논문집』 6호, 한국체육대학교, 2001, 25~37쪽.
- _____, 『남한과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고조선단군학』 9집, 단군학회, 2003, 83~114쪽.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민속원, 2009, 1~308쪽.
- 전영숙, 『<단군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25~144쪽.
- 정선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29~60쪽.
-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59~176쪽.
- _____, 『서사의 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 교육』 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107~138쪽.
- _____,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 서사』, 『인문학논총』 47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5~28쪽.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티벳·몽고·만주·한국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277쪽.
-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탈북이주민: 디아스포라적 관점의 적용을 통한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54집,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257~285쪽.

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5~28쪽.

ABSTRACT

One of the ways of cultural education for immigrant out of North Korea
- Focus on <Tan-gun mythology> and <Ju-mong mythology>

Choi, Yun-jeong*

This research understands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 out of North Korea as the cultural Diaspora. Thus this research starts from the perception that around 20,000 of immigrant from North Korea desperately need the cultural education about thinking and background of human science which are popularly accepted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reviews the survey data from trainees (North Korean immigrant) in the lecture of <Human science in terms of unification> where the author taught on <Tan-gun mythology> and <Ju-mong mythology>. Also, This research analyzes the meaningfulness as the text for cultural education which <Tan-gun mythology> and <Ju-mong mythology> possess. In addition, looking into the meaning of <Tan-gun mythology> and <Ju-mong mythology> in the cultur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immigrant, this research summarizes these mythologies' meaningfulness as 2 aspects such as the possibility of a collective epic poetry for cultural identity and the possibility of a personal epic poetry for healing for a trauma coming from the difficult immigration proces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below 2 ideas in the cultural education for North Korean immigrant. First, lecturer for North Korean immigrant needs to recognize the existing cultural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ince partition and execute the cultural education for national homogeneity. In this point of view,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can find a point of sameness for mutual understanding from 'Classic' and 'Tradition'. Second, lecturer needs to recognize North Korean

* Assistant professor in Youngin University's educational graduate school

immigrator's escape experience as personal or collective peculiarity and suggest the cultural education which can heal a trauma from escape and lead into new life in different environment.

Key Words Immigrator out of North Korea, <Tan-gun mythology>, <Ju-mong mythology>, A collective epic poetry, A personal epic poetry, National homogeneity, Healing

논문투고일 : 2014. 5. 11

심사완료일 : 2014. 5. 27

게재확정일 : 2014. 6. 2

